

플레카노프의 後期 政治思想*

金 學 俊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 | <目次> | |
|------|--------------------------|
| I. | 革命的 事變들의 발발과 플레카노프의 革命戰略 |
| 1. | 「피의 일요일」과 짜리즘의 對應 |
| 2. | 플레카노프의 「愛國主義와 社會主義」 |
| 3. |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提携의 問題 |
| 4. | 플레카노프의 딜레마 |
| 5. | 플레카노프, 자신의 戰略을 再檢討하다 |
| 6. | 풀지 못한 딜레마 |
| 7. | 고독해진 플레카노프 |
| II. | 現實政治로부터 學問世界로 |
| 1. | 教條主義의 회생이 되고 나서 |
| 2. | 러시아 社會民主黨의 內紛과 플레카노프 |
| 3. | 플레카노프의 哲學世界 |
| 4. | 플레카노프의 歷史研究 |
| 5. | 플레카노프의 藝術研究 |

I. 革命的 事變들의 발발과 플레카노프의 革命戰略

1. 「피의 일요일」과 짜리즘의 對應

당명 25주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플레카노프는 자신이 그 사이 성취한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지닌 채 자신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고통과 좌절 그리고 질병과 빈곤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길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러시아 마르크시즘의 기초를 쌓았으며, 그 과정에서 고도로 동태적이며 또한 잠재력이 큰 혁명정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정통 마르크시즘에 대한 수정주의의 도전을 「패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있어서는 경제주의자의 「邪說」과 싸웠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는 베른슈타인流의 수정주의와 싸웠던 것이다. 물론 많은 문제점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러시아 내부에서 새로이 창설된 사회혁명당(1901년)과

* 이 글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책은 다음이다. Samuel H. Baron, *Plekhanov: The Father of Russian Marx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pp. 258-309.

자유주의적 성격의 해방동맹(1903년)이 사회민주당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은 여전히 지도적 지위를 지켜 나가고 있었으며, 플레카노프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하기야 사회민주당도 2차 당대회 이후 멘세비키와 볼세비키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양자 사이에는 합의할 수 있는 넓은 영역이 있는 만큼 화해와 재결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진보의 불가피성에 대한 신념에 뿌리박고 있는 그의 낙관주의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무엇이 우리에게 닥쳐 오던간에 우리는 종국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은 그가 즐겨 쓰는 표현의 하나였다.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라는 플레카노프의 확신은 물론 러시아사회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는 망명지라는 「돛대 위의 망루」로부터, 자신의 예언의 확인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러시아사회 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조류를 면밀히 관찰해 온 터였다. 자신의 관찰에 비추건대, 20세기에 접어든 이제는 “윙윙 소리 내며 돌아 가는 시간의 베틀(whirring loom of time)”이 관건이었다. 러시아의 경제발전이 급속히 이뤄져 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조직이 산업사회에 깊이 침투해 들어 오지 않았던가? 화폐경제와 시장관계가 농촌으로 확대되면서 옛 스타일의 농민은 「해체」되지 않았던가? 러시아의 경제적 진화는 부르조아계급과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출현을 가져오지 않았던가? 종합컨대 그는 러시아의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이러한 「유럽화(Europeanization)」는 그와는 전적으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기초 위에 세워졌던 전제적 정치체제를 시대착오물로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제 그에게는 짜리즘을 역사의 쓰레기더미로 내던지고 러시아의 정치생활을 유럽화할 날이 멀지 않았다.

1900년대 초기의 시점에서 볼 때, 러시아 전제체제의 위기는 명백히 성숙해 있었다. 더욱 더 빈번히, 보다 큰 대담성을 지닌 채, 더 많은 수의 학생들과 노동자들 및 농민들이 파업을 벌이거나 시위를 주도했고 소요를 일으켰다. 규모와 과격성에 있어서 그러한 혼란은 전례없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그러한 혼란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새로운 혼란을 발효시키는 기술을 가진 지하의 정치조직들이 대두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짜리즘체제는 19세기 러시아사회가 경험했던 위협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위협

에 직면하게 되었다. 19세기 중엽에 시도된 알렉산더 2세의 개혁들은 원래 동요를 종식시켜 사회적·정치적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계산에서 나왔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바로 그 개혁들은 체제에 대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위험스런 大軍을 키워 놓은 결과로 나타났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알렉산더 2세의 개혁은 불가피했었다. 그러나 그 개혁 이후에는 러시아 전체 사회의 평화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어떠한 정치적 이니셔티브도 짜리즘은 취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러시아의 전제체제는 본의 아니게 혁명가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었던 것이다.

짜리즘적 통치의 관례에 따라 니콜라스 2세는 폭력과 이중성으로써 대중의 동요를 제압하고자 했다. 시위가 벌어지면 우선 코싸크 기병대를 동원해 채찍을 마구 휘두르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다 음흉한 방법이 사용됐다. 전반적으로 무지몽매했던 대중의 불만을 反유대 감정으로 전환시켜 그들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유대인 집단 학살극을 벌이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혼학적으로 표현해, 비밀경찰 요원들은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놓고 혁명가들과의 경쟁을 시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도 아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프롤레타리아의 불만을 중화시키고자 한 것이다(이것을 경찰노조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불만이 경찰노조주의의 관리자들이 설정한 좁은 범위 안에서 봉쇄되어질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이란 혁명적 사변이 일어났다. 경찰노조주의의 뒷받침 아래 조직된 어느 한 노조를 이끌고 있던 가蓬신부(Father Gapon)가 부분적으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압력 때문에 1905년 1월 9일 그들을 이끌고 평화적 행진을 벌여 마침내 황제의 冬宮에 당도했을 때, 궁정수비대는 무모하게도 발표를 자행하여 수백 명의 시위자들을 학살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농민까지 대대적인 반체제 활동 속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제정 러시아에서 이른바 「1905년의 혁명(Revolution of 1905)」이 시작되었다.⁽¹⁾

다른 각도에서 볼 때, 1904년 한 해 동안 줄곧 커졌던 또 하나의 파도가 「피의 일요일」에 터진 혁명적 사변 속으로 수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벌써

(1) 이 일련의 事態展開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Edward Crankshaw, *The Shadow of the Winter Palace: Russia's Drift to Revolution, 1825-1917*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6), pp. 337-340; Sydney Harcave, *First Blood: The Revolution of 1905* (London, 1964).

몇 해 동안 니콜라스 2세는 동북아시아에서 무모한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명치유신 이후 활력을 축적해 온 일본과의 마찰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온 터였다. 여기서 1904년 2월 일본이 여순항(Port Arthur)의 러시아 해군기지를 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러시아정부가 “멋진 작은 전쟁(a nice little war)”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기도 한다. 일본쯤은 쉽게 패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외전쟁이 수행되는 동안에는 애국적 정열이 치솟아 사회적 동요를 쉽게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짜리즘의 통치기술자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관찰이 사실이라면 짜리즘은 커다란 과오를 범한 셈이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국내적 혼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전쟁까지 치러야 할 정도로 외교정책을 수행해 왔다는 것 자체가 짜리즘의 무능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알렉산더 2세가 취했던 개혁의 空洞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방력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 짜리즘은 대내적 안정성을 성취하는 데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 협도 구축하지 못했음이 입증되었다.

처음부터 일본과의 전쟁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없었다. 전쟁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으로 미만되어 있었으며, 러시아가 패전을 거듭할 때마다 그것은 공개적인 항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의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정부에게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집단적 압력을 활발히 벌여 나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유주의적인 해방동맹(Union of Liberation)과 젬스트보(일종의 의회)그룹 및 전문직업적 단체들이 1904년 후반기에 주도한 개혁요구운동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니콜라스 2세는 종전의 강경정책에서——몇 개월 전만 해도 그는 궁전광장(Palace Square)에서의 시위대를 아무런 주저없이 학살했다——후퇴하여 비교적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온건한 스비아토폴크-미르스키公(Prince Sviatopolk-Mirsky)을 내상에 임명했다. 온건파 인사라면 개혁요구세력을 심리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개혁요구세력은 짜르가 약점을 보였다고 판단하고 더욱 대담해졌다. 정부와 체제전반에 대한 공격을 가열시켰으며, 1905년에는 마침내 노동자와 농민 및 학생들과 함께 짜리즘에 반대하는 전열에 가담한 것이다. 이로써 이제 러시아국가의 억압정책에 맞서 봉기할 기회를 장악한 세력으로 조직적

정당, 학생, 노동자, 농민, 소수민족 이외에도 전문직업인, 향신, 자유주의적 성향의 기업인들을 꽉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구 정치질서를 타도하거나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반체제 연합전선의 형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 사이의 경쟁이 현재화할 가능성 역시 그만큼 커졌으며, 만일 경쟁이 치열해지면 짜리즘 타도의 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전술이 어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졌다. 각개의 그룹은 짜리즘 타도를 위한 힘의 집중이라는 대명제를 지키면서도 짜리즘이 타도된 이후에 출현할 새 정치질서 속에서 될 수 있으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장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취하기 어려운 균형임은 물론이다.

다른 어느 당보라도 러시아 사회민주당에게 전술적 도전은 커다란 과제였다. 이미 20년전에 플레카노프는 러시아가 밟아 나가야 할 혁명의 코스들에 대한 명백한 설계도를 제시했었고, 러시아 마르크시스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여 왔다. 그 설계도는 물론 2단계 혁명론에 입각한 것이다. 제 1 단계에서는 짜리즘을 타도하여 부르조아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모든 정력을 기울일 것이 요청되었다. 바꿔 말해, 플레카노프에 의하면, 러시아의 사회민주주의 혁명가들은 자신들이 제 2 단계에서 타도의 대상으로 삼을 부르조아 민주주의체제를 세우기 위해 짜리즘과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즉, 짜리즘에 대한 투쟁은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정검다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2단계 혁명론에 대해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양파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당 조직원리에 관한 문제 또는 당의 기본성격에 관한 양파 사이의 이론적 차이점은 그들 모두에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결이 혁명의 진행과정에서도 유지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양파의 단결은 혁명적 경험 그 자체의 충격과 奇變들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혁명의 진행방향은 자신이 그렸던 그 설계도에 부합될 것인가 아니면 상치될 것인가? 바로 이 물음에 1905년 혁명의 중요성이 플레카노프에게는 놓여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던 혁명이론의 시험기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점에서 1905년은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그

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되었다.

2. 플레카노프의 「愛國主義와 社會主義」

러일전쟁이 발발한 무렵 플레카노프는 『이스크라』의 창립편집인들의 대다수와 재결합을 이룩하고 있었다. 그 이후의 몇 달 동안 레닌에 대한 그의 증오심은 늘어나지만, 그것은 혁명가들에게 그렇게 싫었던 시기에 레닌이 보여준 「분열적」 전술 때문이었다.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플레카노프와 그의 동료들은 굳게 단결되어 있었으며, 러일전쟁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였다. 그들은 모두 일본이 러시아에게 패전을 안겨주면 러시아혁명가들의 투쟁은 쉽사리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러시아의 패전 자체가 혁명의 동맹이라는 공식에 합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일치된 견해는 “세바스토폴(Sevastopol)의 패배가 니콜라스 1세 체제의 뿌리를 잡아뗀 것이라면, 여순항의 패배는 니콜라스 2세 정권의 기초의 분쇄를 기약하는 것”이라는 플레카노프의 선언(1904년 4월) 속에 잘 요약되어 있다. 또 1905년 5월 러시아의 「국가적 수치」의 보도에 접하고도 러시아육군의 사관생도였던 플레카노프가 슬퍼하기는커녕 기쁨에 충만해 있었던 데에도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

러일전쟁에 대해 플레카노프가 취한 입장은 국제주의적이고 혁명가적이며 패배옹호주의자의 그것이었다. 이 점은 1904년 8월 암스테르담(Amsterdam)에서 열렸던 국제사회주의대회에서 보여준 그의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개회사를 통해 대회의장이 “연단 위에 두 교전국가의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있는 사실에 상징되어 있는 바와 같은 전세계 프롤레타리아의 형제적 유대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하자, 플레카노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본 사회주의 지도자 카타야마 쎈(片山潛)과 크게 악수하면서 우의를 과시했던 것이다. 이를 보고 대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곧 플레카노프의 연설이 뒤따랐는데, 그는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의 전쟁을 「도발」했다고 비난하고 이제 러시아 정부의 붕괴는 머지 않았다고 예언했다.

당시 국제사회주의운동은 러시아의 체제적 위기에 자신의 거의 모든 운명을 걸고 있었다. 유럽 반동세력의 방파제로 인정되고 있는 짜르 전제체제의 붕괴는 사회주의운동의 전진을 촉구시킬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 까닭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1905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혁명적 사

변에 대한 「전 세계 노동계급의 연대」를 과시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부과된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플레카노프는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내부적 단결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내부적 분열 때문에 국제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러일전쟁에 관한 플레카노프의 입장의 이론적 기초는 그가 1905년에 쓴 「애국주의와 사회주의(“Patriotism and Socialism”)」라는 중요한 논문 속에 나타나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 조국에서는 애국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투쟁은 같은 국적의 노동자와 그 착취자 사이에서 보다는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유대를 발전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국수주의의 첫 번째 나팔소리를 듣자마자 국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의 야망과 국가의 영예라는 것도 보다 큰 大義, 즉 국제사회주의운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휴머니티(인류·인간성·인간애)라는 大義 앞에 굴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각도에서 그는 「진정한 사회주의자의 戰爭觀」을 이렇게 정립했다.

사회주의자는 모든 전쟁을 교조주의적인 입장에서 반대할 수는 없다. 일단 전쟁이 터지면, 그는 누가 공격자이고 누가 방어자이냐를 따질 것 없이, 사회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 줄 쪽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명제를 러일전쟁에 적용하면서, 그는 일본의 승리가 일본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지만, 일본의 승리에 따른 러시아의 패배는 짜리즘의 붕괴를 촉진시킬 것이며 그것은 국제사회주의운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지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사회주의적 反군국주의와 조화시킬 필요를 느꼈다. 이에 그는 현대전은 결국 노동계급의 이익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까닭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분자들은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레카노프의 이러한 공식은 그 당시에는 자명한 진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1차대전을 전후한 국제위기 상황

에 직면해서는 그의 공식은 애매모호했던 것임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국제 사회주의운동계의 격렬한 논쟁의 촛점이 된다.

3.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提携의 問題

자신이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전략에 맞춰가면서, 플레카노프는 1904년으로부터 1906년에 이르는 혁명적 위기 동안에,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거의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가 분석한 바로는, 현재 진행중인 대중봉기는 부르조아혁명으로만 발전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르조아지가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 역시 결정적 타격을 가해야 할 것이었다.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면 짜리즘은 타도될 것이며 민주적 정권이 수립될 것인데, 여기서 부르조아지는 통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 정부가 허용하는 시민적 자유 속에서 자신의 경제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전술적 지침으로서 그는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슬로건을 제시했다.

부르조아지가 절대주의체제에 맞선 투쟁에서 혁명적인 한,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지와 어깨를 함께 하라.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과 부르조아지의 이익이 상충한다는 인식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주입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말라.

플레카노프의 예상대로, 온전파 내상 스비아토플크—미르스키의 이른바 「봄」의 기간에, 젠스트보 의원들과 그리고 그가 부르조아지의 범주속에 포함시킨 기타 사회계층의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의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활동을 벌였다. 그러므로 그는 특히 「피의 일요일」 이후에 러시아의 부르조아지에게 무장봉기를 권고하는 경종을 계속 울렸으며, “개별적으로 진군하라. 그러나 힘을 합쳐 加擊하라(March separately, strike together)”는 자신의 경종 소리에 그들이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반체제 그룹들이 각자의 원칙과 조직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성공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활동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바꿔 말해,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는 짜

리즘체제의 건축물을 분쇄하기 위한 그들의 加擊을 同時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플레카노프는 곧 자신의 기대에 잘못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러시아의 부르조아지와 그 주변세력은 혁명에 관한 토론에만 몰두할 뿐이지 행동을 위한 조직사업에는 거의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匠人과 농민의 일각에서도 반혁명적인 경향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질책의 펜을 들었다. “자유를 사랑한다는 그 무수한 사람들의 그 무수한 웅변연습의 소리만으로는 천체체제의 성채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으로써 부르조아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 것이다. 1905년 10월의 총파업이 짜르로 하여금 시민적 자유와 민선의회인 두마(Duma)의 구성을 약속한 「10월 17일의 선언(Manifesto of October Seventeenth)」을 발표토록 강요한 뒤에도, ⁽²⁾ 부르조아지와 두마의원들에 대한 그의 비판은 무뎌지기는커녕 오히려 날카로워졌다. 10월선언의 가면을 쓰고 배후에서는 혁명세력의 연합을 깨뜨리고자 다방면으로 머리를 짜내는 수상 위테 백작(Count Sergei Witte)의 전략을 정확히 읽고 있던 그는 부르조아 서클 내부의 반혁명적·반프롤레타리아적 분위기는 결국 위테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실제로 있어서 자유주의운동 내부의 보수주의 세력은 체제공격진영으로부터 이탈하여 10월당(the Octobrist Party)을 형성하고 정부와의 협력관계에 들어갔다. 1906년에 들어가서는 자유주의운동 내부의 진보주의 세력인 카데트당(입헌민주당)마저 혁명적 열정을 거의 완전히 잃고 있었다. 1906년 4월에 소집된 제 1대 두마에서는 진보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짜르로 하여금 두마의 해산을 선언하게 할 정도로 투쟁했던 카데트당이 7월의 비보르그선언(the Vyborg Manifesto)에서는 반체제적 태도를 크게 완화했던 것이다. 플레카노프에 따르면, 그 선언은 정부에게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몇 개의 소극적 저항조치를 취하도록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이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카데트당은 당연히 제기해야 할 제헌의회구성 요구를 포기하고 있었고 다음 선거에서 공동전선을 형성하자는 사회민주당의 제의도 일축하고 있었다. 플레카노프는 이에

(2) 10월선언의全文은 Frank A. Golder, *Documents of Russian History, 1914-1917*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27), pp. 627-628.

카데트당이 인민주권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인민의 자유당(Party of People's Freedom)으로 보다는 인민의 半자유당(Party of People's Semi-Freedom)으로 불리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부르조아지의 반혁명적 정치행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플레카노프는 두 개의 관점을 제시했다. 첫째, 그는 레닌의 粗野한 전술이 부르조아지로 하여금 보수주의적 또는 우파의 입장으로 달음질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부르조아지를 밀어주면서 몰아세우는 양면작전을 취하지 않고 그저 몰아세우기만 함으로써 레닌과 볼셰비키는 자유주의운동의 진전에 커다란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둘째, 그는 부르조아지가 혁명에 대해 불분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계급적 기득권보호에 있다고 분석했다. 짜리즘체제와 끝까지 싸우는 것을 주저하고 보통선거권에 입각한 제헌의회의 구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國利民福보다 계급적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카데트당만 하더라도 보통선거권에 따른 제헌의회가 구성되면 혁명세력이 주장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배상 없는 토지 몰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두려움의 제약 아래서 행동하고 있다고 그는 비난했다. 벌써 오래 전부터 그는 부르조아지가 혁명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조아지를 혹독히 비난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의 그의 행동은 그로 하여금 묘한 입장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플레카노프는 부르조아지에 대한 기대를 전적으로 포기해 버리지는 않았다. 그는 그들이 정치적 자유화를 위해 취하는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카데트당이 「全權的인 두마」 또는 「완전히 주권적인 두마」를 요구하지 못하고 그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의 두마만을 구상하고 있는 점을 공격하면서도, 그는 그들의 투쟁에 대해 프롤레타리아트는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썼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마르크스의 역사발전단계론을 흔들림없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했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그는 마르크스의 가르침대로 러시아가 이제 돌입해야 할 역사발전단계는 부르조아혁명이며 따라서 부르조아지가 절대체제에 대한 투쟁에서 혁명적 성격을 유지하는 한 프롤레타리아트는 그를 지원해야 한다고 믿고 그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이다.

4. 플레카노프의 딜레마

이처럼 일관되게 마르크스의 가르침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는 러시아 사회민주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극우적 입장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볼세비키는 그가 부르조아 신문에서 「존대」받고 있음을 조롱하면서 그를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멘세비키조차 그의 전술이 자기패배적이라고 공격했다. 그들은 그가 제시한 전술이 프롤레타리아트를 부르조아지의 도구로 만들 뿐이라는 볼세비키의 공격——그는 이 공격이 부당한 공격이라고 되풀이해 강조했다——에 무척 민감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또 “부르조아지의 이해관계와 구질서의 이해관계 사이의 기본적 대립(플레카노프의 표현)”을 격화시켜 줌으로써 사회민주당은 부르조아지를 보다 더 공격적 입장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었다. 부르조아지는 계급적 이익 때문에 보수적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던 그의 종전의 해석과 이 주장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단 말인가? 이 중요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러시아 마르크시즘의 아버지」가 제시하는 혁명의 공식은 커다란 곤경에 빠진 징후를 나타냈다.

10월 혁신 이후 부르조아지의 상당한 부분이 정부와 기꺼이 제휴하는 것을 보고 플레카노프는 농민을 “러시아 혁명의 드물게 강력한 예비군(that extraordinarily powerful reserve of the Russian revolutio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즉 체제에 대한 계속적 공격에 있어서 농민이 부르조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세력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농민의 혁명적 성격에 대한 플레카노프의 불신은 여전했다. 특히 농민의 이해관계를 표현해 주고자 노력하는 정치세력을 그는 거의 완전히 무시했다. 이 점은 사회혁명당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명백했다. 그는 자신의 글 가운데 사회혁명당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언급하는 경우에도 「이른바 사회혁명의 이른바 정당」이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할 정도였다. 그는 사회혁명당이 이론적으로 조야하고 세련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경멸감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 세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게 하였던 것이다. 농민을 세력기반으로 삼아 제 1대 두마에 크게 진출했던 노동파(Trudoviks)에 대해서도 그는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의 관계에 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연합에 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다.

농민에 대한 플레카노프의 불신은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나타났다. 당시 러시아의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민반란과 그리고 그들의 토지개혁안을 지지하면서도 그는 대규모 농토소유가 봉건제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경제발전을 의미할 때에는 大農에 대한 소작농의 저항을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이것은 小農이 대규모 자본주의의 「자연적」이며 합리적인 발전에 반대된다는 그의 평소의 소신을 반영하는 것 이었다. 농민문제에 대한 그의 종합적 견해는 1906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통합대회에서 행한 그의 연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는 레닌이 다시 들고 나온 토지의 국유화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동시에 그는 물수한 토지를 개인 소유로가 아니라 국가 소유로 돌리는 방안을 지지하는 농민들의 심리적 경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모든 토지의 국가 소유가 러시아의 동양적 전제의 경제적 기초였다고 보는 그에게 농민들의 그러한 주장은 비합리적인 염원으로 비쳤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러시아농민의 정치의식의 결여를 지적했다. 러시아농민은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상태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동적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능력을 가질 수 없었다고 분석하면서,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비합리적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땅을 그처럼 열렬히 원하면서도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농민들은 皇軍의 병사로 징집되어, 오히려 땅의 분배를 가져올 혁명을 분쇄하는 작업을 도와줌으로써 자신들의 둥지를 망쳐놓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농민의 실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 세력이 그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지지자」이며 동시에 신뢰할 만한 동맹자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은 큰 오류라고 그는 주장했다.

바로 이 점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예언자(the prophet of the proletariat)」인 플레카노프는 커다란 딜레마(곤경)에 빠져버렸다. 정치적 자유를 위해 전투적으로 투쟁해야 할 부르조아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농민은 무제한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플레카노프의 눈에는 농민의 투쟁이 비합리적 성격의 투쟁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는 플레카노프식 혁명논리구조에 있어서 고립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점을 그는 1905년 12월경에는 명백히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 무렵 사회민주당의 후원아래 프롤레타리아의 무장봉기가 발생하자 은밀하게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그 무장봉기는 결국 유혈사태 속에 프롤레타리아트의 패배로 끝났다). 이것은 그가 프롤레타리아트 단독으로 짜리즘 절대주의체제를 붕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5. 플레카노프, 자신의 戰略을 再檢討하다

여기서 플레카노프는 혁명의 성취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06년과 1907년 동안 그는 지난 몇 해 사이의 일련의 사태를 면밀히 재분석했으며, 그 결과 “혁명세력이 적의 힘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충분한 준비없이 혁명에 뛰어들었다”는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짜리즘체제는 프랑스혁명 당시의 보수반동체제가 갖고 있던 저항력보다 훨씬 큰 저항력을 갖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혁명세력은 도전의 장갑을 던지기에 앞서서 치밀하고 극도로 주도면밀한 준비를 했어야 옳았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는 자신이 「괴의 일요일」 직후에는 “성공적인 프롤레타리아 무장혁명의 시기는 지났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점을 잊고 있었다).

혁명세력의 준비 부족을 공격하면서 플레카노프는 그 포문을 우선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겨냥했다. 1905년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도해야 할 이 혁명정당이 볼셰비키파와 멘셰비키파로 양분되어 당 전체로서 무력했었음을 공격한 것이다. 실제로 있어서 1905년 봄 당의 내분은 깊어져 있어서 양파는 개별적 대회를 열었었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플레카노프는 1905년 중반에 『이스라크』 주간지과 당 협의회(Party Council) 의장직을 사임했다. 이러한 극적인 조처로써 그는 양파의 지도자들을 움직여 당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당적 사퇴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물론 한 해 뒤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한번 통합당대회가 열리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지방조직의 당원들로부터의 압력이 커던 탓이었다. 스톡홀름 당대회 이전과 진행중 및 이후 시기에 그가 일관되게 당 단결을 호소했으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는 통합을 이루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그의 애매한 태도였다. 그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양파의 견해 차이를 지나치게 드러내 설명했던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그가 정통마

르크시스트의 입장과 수정주의자의 입장의 차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강조하면서 수정주의자의 추방을 요구했던 과정을 살펴 보았었다. 그런데 이 무렵에 그가 강조하는 볼세비키파와 멘세비키파 사이의 견해차이의 깊이는 前者들의 그것보다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예컨대 1906년 그는 멘세비키와 볼세비키는 이제 마르크시스트와 블랑키스트라는 이름으로 각각 구분되어 불리어야 한다고까지 공언했던 것이다.⁽³⁾

볼세비키를 블랑키스트로 매도한 플레카노프는 그가 20년전에 나로드니끄들에게 펴부었던 똑같은 공격을 가하고 나섰다. 볼세비키는 변증법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볼세비키는 어떤 목표들이 역사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현실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 위에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결여하고 있고 수단과 목표를 조화할 줄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행동을 결정짓는 객관적 법주를 설정하지 못한 채 그저 마법적인 수단을 통해 획득불가능한 목표를 획득하려는 그들은 말하자면 “혁명의 연금술사(alchemists of revolution)”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격하고 조야한 전술과 슬로건을 구사함으로써 그들은 부르조아지 사이에는 경각심만을 심어주었고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는 혼란만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볼세비키에 대한 플레카노프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볼세비키의 전술이 무장봉기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강조하는 반면 노조와 농협 및 선거활동 등을 통한 노동자의 자체활동과 의식의 개발을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르크시즘의 원리를 배반했으며, 그로써 혁명운동과 프롤레타리아트를 승리로 이끌어 줄 유일한 전술을 배반했다고 비난했다.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주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비유

(3) 블랑키스트란 말은 프랑스의 사회주의 혁명가였던 블랑키(Louis Auguste Blanqui: 1805~81)의 추종자를 의미한다. 블랑키는 대학생 때부터 군주제의 타도를 위한 각종 운동에 참가했다. 적업적 혁명가로서의 그의 생애는 1830년의 7월혁명에의 참가로 시작됐다. 그 이후의 그의 삶은 폭동에의 참가→투옥→석방의 반복으로 특징지워졌다. 몇 차례의 망명생활도 경험했다. 이 때문에 행동인(homme du coup de main)으로 불리웠던 그는 76년의 생애에서 33년을 형무소에서 보냈고 10년을 망명지에서 보낸 셈이었다.

그는 바뵈프(François Emile Babeuf) 등의 공산주의, 프루동(Pierre Joseph Proudhon) 등의 무정부주의, 생 시몽(Claude Henri de Rouvroy Saint-Simon)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자본주의 사회의 폐지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응호했다. 그는 혁명의 전술로서, 소수정예분자인 혁명가의 폭동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제시했다. 그의 추종자들인 블랑키스트는 19세기 말의 프랑스에서 성립했고 그의 혁명론은 레닌 등의 볼세비키에게 영향을 미쳤다. 鄭仁興 등 共著, 『정치학대사전』(博英社, 1975年), 724面.

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만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볼셰비키가 혁명적 응변을 토하고 있는 회합에 나타나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면, 그 두 사람은 「중용적 태도」 때문에 「카데트流의 마르크시스트」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귀절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플레카노프는 은연중에 자신을 마르크스 및 엥겔스와 동일시했다. 볼셰비키는 그를 「카데트流의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지탄했었기 때문이다.

스톡홀름 당대회에서 플레카노프는 처음으로 자신이 멘세비키파에 속한다는 점을 공언했다. 그러나 그는 파벌성을 버리고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혁명적 사변들과 트로츠키의 역설에 의해 크게 영향 받아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이후 옹호해 왔던 혁명전략의 틀을 깨뜨리려는 멘세비키파 내의 강경파와도 싸웠다. 그가 보기에도 이 멘세비키 파벌은 볼셰비키의 압력 아래 자신들이 기회주의자라는 지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과격한 노선을 걷고 있었다. 또 이 멘세비키 파벌은 혁명의 진로를 예측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시점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취해야 할 전술을 모색함에 있어서 지나친 도식주의에 빠져 있다고 그는 보았다(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사실 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제2대 두마 선거 당시에 그는 당의 선거강령을 「부적절하게 쓰여진 문서」이며 「빈약한 사색의 결과」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은 물론 볼셰비키파와 멘세비키파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자아냈다.

이처럼 양파 모두의 전략과 전술을 공격하는 그가 그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론적 출발점은 프롤레타리아트였다. 분쇄된 혁명 세력을 재조직해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는 작업은 역시 프롤레타리아트의 재조직과 의식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즉 사회민주당의 지도노선이 잘못 설정되었을 때는 극우적인 반동세력에 가담할 수도 있고 또는 극좌적인 폭동주의 세력에 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민주당이 혁명한 전술을 구사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수준을 높여서 그들을 「代數的 계급으로부터 산술적 계급으로」 그리고 「잠재세력으로부터 의식있는 실체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그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노동자의

자기활동(self-activity)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동조합을 중시했으며, 볼셰비키와 대부분의 멘셰비키가 지지한 두마선거거부안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는 또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지지했으며, 악설로드가 오랫동안 제창해 온 노동자 전체총회의 소집을 다시 한번 지지하고 나섰다. 노동자는 사회민주당의 지도 아래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깨닫고 동시에 그것을 증대시킬 방법에 눈뜨게 되며, 곧 사회민주당에 가담하여 분열되어 있는 이 당을 하나의 단결된 대중정당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때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비로소 부르조아지를 비롯해 그 밖의 모든 사회세력들의 행동을 자극시킴으로써 짜리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6. 풀지 못한 딜레마

플레카노프의 이러한 제안들과 예전은 혁명운동의 세부계획을 정립한 것 이었으나 그가 오래전부터 제시해 온 러시아혁명의 기본공식에 비춰 볼 때 본질적 변화를 전혀 내포하지 못한 것이었다. 새로운 혁명적 공세를 위한 충분한 준비작업에는 여러가지로 큰 도움을 주는 지혜가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답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준비가, 기존체제에 대한 보다 강건한 반대를 부르조아지로부터 도출시켜 내는 사회민주당의 전술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다. 부르조아지가 기존체제에 대해 보다 굳세게 저항할 때, 프롤레타리아는 절대주의체제에 대한 공격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분석한 것이다. 바꿔 말해, 「함께 공격을 가함으로써(striking together)」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는 러시아의 제1차 혁명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민주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고양시켜서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혁명투쟁에서 「개별적으로 행진 할 수 있도록(march separately)」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던 것이다. 이 공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짜리즘 절대체제에 대해서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함께 싸우게 하라. 그러나 그 과정중에도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이익과 부르조아지의 계급적 이익이 적대관계에 있다는 것을 끓임없

이 주입시켜라.

그러나 바로 이 공식 속에 1905년의 일련의 사태들이 날카롭게 부각시킨 플레카노프의 예측에 있어서의 기본적 모순이 놓여 있었다.

처음부터 플레카노프는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절대체제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부르조아지의 평등적인 도구가 되지 않게끔 하는 데 큰 역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민주당의 지도 아래 독자적 이면서 계급의식적인 세력으로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주의자들은 일시적 방편을 위해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를 감춰서도 안 되고 자신들의 사회주의적 선전을 참정적으로라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플레카노프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투쟁하는 경우, 부르조아지는 부르조아 사회의 과과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적대적 계급과의 공동전선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가능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는 이 가능성을 자신의 계산 속에 적절히 포함시키지를 못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의 고양과 부르조아지의 혁명적 전투성 사이에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르조아지의 혁명적 전투성은 줄어들 것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르조아지의 혁명적 전투성은 높아질 것이다. 유럽의 혁명이 부르조아 혁명일 수 있었던 것은 부르조아지와 그의 대표자들이 반체제운동에서 1차적이면서 동시에 확고한 리더십을 장악한 반면에 프롤레타리아트는 하나의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행동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계급의식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플레카노프는 그 양자의 반비례적 관계를 명백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1905년의 혁명적 사변들이 부르조아지와 계급의식적 프롤레타리아트 양자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프롤레타리아트가 계급의식을 명백히 지니는 경우 그것은 부르조아지가 지니고 있는 혁명적 성향을 곧 마멸시켜 버린다는 점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개의 상극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확실히 1905년의 혁명적 사변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날카롭게 제기시키고 있었다. 부르조아 혁명이 부르조아지 없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계급의식적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절대체제를 타도하고 나서 그들이 적대적 계급인 부르조아지에게 권력을 넘기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러한 질문들에 대해 트로츠키와 레닌은 각각 대답을 제시한 바 있다. 트로츠키는 러시아의 상황논리가 부르조아민주주의의 시기를 생략해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프롤레타리아트는 짜리즘 절대체제의 타도와 더불어 즉각적으로 부르조아지에 대항해 싸우면서 가능한 모든 속력을 다하여 사회주의 단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닌도 트로츠키처럼 플레카노프의 2단계 혁명론을 깨뜨렸다.⁽⁴⁾ 그러나 트로츠키처럼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교리적 고려에 제약되어, 그는 사회주의로의 즉각적인 轉移를 주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의 1차혁명의 결과를 부르조아정권의 수립과 동일시하는 견해를 배격하고 그 대신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독재체제의 수립을 옹호했다. 이에 비해 플레카노프는 1905년의 혁명적 사변들이 제기한 이론적 딜레마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되풀이해 말하거니와, 확실히 플레카노프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면서 동시에 부르조아지의 짜리즘체제에 대한 투쟁의식을 자극시키는 전술의 발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그의 주장은 일관성이 약했으며, 이에 따라 그의 입장에 대한 지지도 급격히 내려가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그는 국제사회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의 위신을 빌어 자신의 입장을 유지시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몇몇 거장들에게 그는 러시아 혁명의 성격에 관한 일련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러시아 사회민주당에게 적합한 전술이 어떤 것인가를 물기도 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입장에 근본적으로 동정적인 회답을 줄 것이며, 그에 따라 자신의 줄어드는 영향력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그의 입장이 움직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그가 국제사회주의운동계에서 어느 누구보다 가장 존경하고 있던 인물인 카우츠키마저 그의 입장을 철두철미하게 깨뜨리는 반응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카우츠키의 반응이 얼마나 反플레카노프적이었는가 하는 점은 레닌이 그것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자신의 해설을 달아서 출판한 사실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레닌의 설명 그대로, 카우츠키의 관점은 「불세비키파의 전술의 타당성에 대한 가장 뛰어난 확인」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플레카노프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패배의 하나를 의미

(4) 이 논쟁은 다음 책에서도 자세히 다뤄지고 있다. Bertram D. Wolfe, *Three Who Made a Revolution*, rev. ed.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4), pp. 281~282.

했다.

카우츠키의 주장의 핵심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이 러시아혁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견해, 즉 러시아혁명이 그 본질에 있어서 부르조아 혁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부르조아지의 취약성과 독자적 프롤레타리아 정당의 출현이 그 점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카우츠키는 이어 부르조아 정권은 러시아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농촌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재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농촌문제는 과격한 수단에 의해서만, 즉 배상없는 토지몰수와 그리고 군대·교회·국가의 토지를 회생으로 한 對농민 대규모 국가지원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데, 러시아의 부르조아지 정권이 그러한 근원적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성이란 그 계급의 토지와의 밀접한 연관성에 미루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러시아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연합에 의해서 이끌려야 하며, 이 때 비로소 러시아는 정치적 자유와 농촌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고 카우츠키는 결론지었다. 이러한 입장은 레닌의 그것에 아주 가까운 것이었다. 즉, 그는 레닌처럼 진정한 부르조아 혁명의 가능성을 배격하지만 사회주의가 러시아에 임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은 보였던 것이다.

카우츠키의 분석에 접하고도, 플레 카노프는 카우츠키가 실제로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차이는 오직 어의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로자 루셈부르크가 개진한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회피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제 그의 처방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에게나 명백해졌다. 그가 자신의 생애를 바쳐 쌓아올린 혁명이론이 막상 실험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것은 결함을 지닌 것으로 판정된 것이다. 그의 이론이 위기에 처했던 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인민주의자로서 러시아 혁명운동에 종사하고 있던 당시에도 그의 인민주의 이론 또는 구상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했었음이 드러났었다. 이때 청년이었던 그는 자신의 위기에 창조적으로 대응하여 인민주의를 버리고 마르크시즘에 귀의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러시아 혁명운동의 새 길을 열었으며 또 그것은 효과적인 방책이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1905년의 혁명적 사변들이 그의 이론에 준 위기를 그는 그 전처럼 창조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50세의 이 혁명가는 청년의 신축성을 잃었던 것이다. 그는 교조주의자가 되어 버려, 자신의 이론의 기본적 전제들을 뒤흔들고 있는 사태들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에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고 있는 그에게 트로츠키와 레닌의 공식은 「혁명적 모험주의」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의 공식만이 역사과정에 적합한 것으로 과신한 그는 「역사발전의 철칙을 깨뜨리고 있는」 다양한 지도자들과 단체들 및 계급들은 머지않아 자신들의 과오를 깨달을 것이라고 자위하고 있었다.

7. 고독해진 플레카노프

플레카노프가 자신의 이론을 이처럼 러시아의 현존상황에 적절히 적응시키지 못했던 원인을 그의 길었던 해외망명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게오르기 플레카노프』(모스크바 : 1924년)를 쓴 바가니안(V. Vaganian)이다. 이들은 플레카노프가 너무나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떨어져 지내 왔기 때문에 혼장감각을 상실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우나, 그가 1880년 1월 러시아를 탈출한 이래 25년간 해외에 머물러 있었으며, 1905년의 혁명 직후에도 귀국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망명가들이 늦어도 1905년 10월의 10월 선언 이후에는 귀국했던 것인데, 그만은 예외였다.

물론 플레카노프가 귀국을 아예 생각조차 안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1905년 안에 돌아갈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점은 핀란드로 먼저 가 있던 악설로드에게 그의 아내가 1905년 12월에 쓴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들이 러시아에서 곧 악설로드와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홍분에 휩싸여 있으며, 우리가 마침내 이곳을 떠나게 될 그 날을 기다릴 수가 없다”고 썼던 것이다. 이에 대해 악설로드는 “게오르기가 선거·의회 투쟁의 분야에서 앞장서게 될 날이 임박했다”고 회신했다. 이처럼 새로운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던 무렵 플레카노프는 다시 한번 중태에 빠져 들었다. 그의 고질인 인두염이 악화된 것이다. 의사들은 수술을 권하기도 하였고, 또는 알제리아로의 휴양여행을 권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어느 정도 증세를 진정시킨 다음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막상 염증이 가라앉아 러시아로의 여행을 시작해도 좋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에는 러시아의 국내상황은 급격한 반동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본국의 동지들이 “즉각적인 체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귀국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오자 그는 별 수 없이 이에 따랐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1917년 3월에 마침내 귀국할 때까지 12년간을 더 모국과의 별리 속에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악설로드가 말했듯이, 그의 질병은 확실히 「변명이 서지 않는 손해」였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반생을 바쳐 기다려 왔던 혁명을 현장에서 보는 기회를 빼앗았다. 그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이해가 적은 다른 혁명가들로 하여금 그의 진의를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그를 몹시 괴롭혔다. 그는 풀이 죽어서 “나는 내 스스로 전장을 기피한 것처럼 느껴져”라고 아내에게 말하기도 했다.

확실히 플레카노프는 불행한 상황에 놓였다. 볼세비키파와 멘세비키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1905년과 1906년 사이에 그의 글의 대부분은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주요 기관지들에는 게재되지 않고 그보다 영향력이 약한 기관지들에만 실렸다. 그가 어떻든 자신의 동지들이라고 생각한 볼세비키파와 멘세비키파로부터는 비난을 받은 반면, 카데트당의 지도자인 밀류코프(Paul Miliukov)로부터는 찬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를 몹시 당황시켰다. 물론 그의 지난 날의 공헌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역사적 기념물로 간주되고 있었으며, 이 점을 그는 가슴 아프게 견뎌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악설로드가 1907년 플레카노프의 아내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플레카노프만이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자기 자신도 “젊은 동지들 사이에서 거의 전적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명백하다”고 썼을 때, 그들은 약간의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중운동만이 역사를 창조한다고 언제나 주장해 왔고 자신을 대중의 이익을 위한 투사로서 자처해 온 그가 이제 자신이 혁명가들의 지지를 상실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민의 적」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II. 現實世界로부터 學問世界로

1. 教條主義의 희생이 되고 나서

“어느 것도 교조주의의 포로가 되는 것 이상으로 혁명의 지도자에게 재난을 주는 것은 없다”고 플레카노프는 말한 적이 있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이 금언의 정확성은 그의 경우에 가장 잘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교조주의에 빠

집으로써 그는 러시아에 막상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전략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고립된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혁명의 교사」로서의 주도적 역량을 수행하지 못했던 탓으로, 플레카노프는 그의 생애의 나머지 10여년을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에필로그로서 만들게 되었다. 후배 혁명가들은 “현재의 플레카노프는 예전의 플레카노프가 아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곤 하였다. 그러한 세론을 뒤엎어버리려는 그의 노력은 오히려 그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줄 뿐이었다.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 그가 새로이 기여할 점은 전혀 없어 보였다.

이에 따라 플레카노프는 1908년과 1914년 사이의 시기에,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1914년) 이후에, 예술과 문학 및 역사 그리고 철학의 연구에 전념했다. 물론 이러한 연구도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 연구들은 인간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수단으로서의 마르크스적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바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정치활동이 아니었으며, 또 그로 하여금 당에 관한 글들을 거의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종합컨대, 그는 이 시기에 현실적 정치 문제에 대해 본원적 관심을 거의 전혀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다룸에 있어서 우선 그의 정치적 활동의 변화를 간략히 다루고 그 다음에 그의 다양한 학문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러시아 社會民主黨의 內紛과 플레카노프

반체제 세력에게 유리하게 기울었던 1905년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은 그 다음 한두 해 사이에는 그들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역전되었다. 1905년의 혁명적 사변들은 보수주의 세력과 반동적 집단들을 짜르를 중심으로 한 절대체제 쪽으로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짜리즘의 부분적·체한적 개혁조처는 온건한 반체제 세력을 최소한 중립화시켰고, 패전군이기는 하나 극동으로부터의 병력의 귀경은 짜리즘의 강화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짜리즘 체제는 반체제 세력을 효과적으로 약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프랑스로부터의 차관의 도입도 짜리즘의 세력 강화에 적잖게 기여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세력이 크게 굳어지자, 니콜라스 2세는 자신의 10월 선언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일련의 조처들을 취해 나갔다. 선거법도 일방적으로 고쳐서

자유주의 세력과 과격파의 의회 진출을 사실상 크게 제약했으며, 제1대 두마와 제2대 두마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의 의사에 불복할 때는 정회시키기도 하였다. 토지개혁에 동조하는 농민들의 처형이 전국을 통해 끊이지 않았고, 과격파 정치인은 형무소로 떼지어 잡혀 갔다. 한편 내상 스톨리핀(Peter Stolypin)은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과감했던 농촌개혁을 통해 농민의 상당한 부분을 반체제 세력으로부터 안정 세력의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반체제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⁵⁾ 성공이 확실시되던 시점에선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성장했던 혁명 세력은 이제 그 대열로부터의 두드러진 대규모 이탈을 목격하게 되었다.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당원의 상실과 간부들의 체포라는 점에서만 손실을 겪은 것은 아니었다. 혁명활동의 비용을 염출하려는 목적에서 불세비키파가 자행한 일련의 은행 강도가 세상에 폭로되면서 당에 대한 비난은 높아가기만 하였다. 당의 내분 역시 격화되었다. 이 때의 당이란 「서류상의 조직체」에 지나지 않았지만,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은 격렬하게 전개됐던 것이다. 음모가 비일비재했고 마키아벨리즘이 활개를 쳤으며, 이에 따라 이상주의적 성향의 당원들의 실망과 수치심은 늘어만 갔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예기치 못한 다양한 조류들이 당내에 나타났다. 모든 지하조직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산주의(liquidationist)」 경향, 마르크시스트적 정치를 보다 정신적인 형이상학적 기초와 결합시키려는 철학적 시도인 「神 건설(God-construction)」 경향, 두마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원들을 모두 사퇴시켜야 한다는 「소환주의(recallism)」 경향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심각한 당내 논전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가 하면, 당의 단결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작되는 바탕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플레카노프는 불세비키파의 투쟁을 계속해 나갔다. 만일 반체제 세력의 오도된 전술이 혁명의 패배에 크게 이바지했다면, 레닌파가 최악의 전술을 채택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세비키를 블랑키스트 또는 바쿠니스트 또는 무정부주의자라고 반복해서 비난하면서, 그들의 오도된 노선의 수정이야말로 당의 진정한 재단결

(5) 이 시기의 스톨리핀의改革案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Warren B. Walsh, *Russia and the Soviet Union*, rev. ed.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8), pp. 339-341.

의 본질적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얼마 동안 그의 개인적 위치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혁명이 좌절된 뒤, 특히 멘세비키파를 중심으로 해서 트로츠키 노선으로부터의 후퇴 현상이 나타났고, 플레카노프와 악설로드의 입장은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플레카노프의 지론처럼, 「미성숙한」봉기의 준비를 회피해야 하며, 보다 조심스런 정책을택해야 하고, 이미 획득된 것을 공고화하고 조직을 재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의식을 발전시키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들은 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진흥시키는 작업에 기꺼이 협력했으며, 사회민주당원들이 의회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들을 큰 관심을 두고 날카롭게 관찰했다. 동시에 자유주의 세력이 진보적 조처를 정부에 요구할 때에는 그들을 지원해 주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플레카노프의 고립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었다. 그들이 트로츠키 노선으로부터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레카노프 노선에 안주하지도 않았다.

당시 멘세비키 세력은 마르티노프(F.S. Martynov)와 단(Theodore Dan)에 의해 이끌리고 있었다. 이들은 1905년의 혁명기에는 트로츠키 노선을 추종하다가 잠시 플레카노프 노선을 지지했었으나 이제는 조직 문제에 관한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청산주의였다(이 모욕적인 용어는 레닌이 만들어 낸 것이다). 플레카노프는 이 노선에 찬성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플레카노프와 멘세비키파 지도층과의 갈등은 다시 표면화된 것이다. 이하의 부분에서 이 양자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살피기로 하자.

멘세비키파는 원래 「직업적 혁명가들의 음모 정당」론을 배격했었다. 제2차 당 대회에서 레닌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을 「직업적 혁명가들에 의한 음모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이를 반대한 당원들이 멘세비키였음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은 노동계급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대중적 정당 조직을 지지했던 것이다. 악설로드의 설명으로는, 노동 계급의 「자기 활동」을 복돌아 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프롤레타리아적인 당을 출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1905년의 혁명운동이 좌절되자 이러한 정당 개념이 멘세비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났다. 음모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무장 봉기의 준비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이제 혁명의 재개가 가

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한 것이 확실해진 만큼 음모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본 것이다. 바꿔 말해, 강력한 노동 계급의 조직을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기회가 획득된 만큼 차라리 그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이 시점의 정확한 노선이라면, 그것은 결국 합법적 활동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현 단계에서는 부적절한 음모적·지하적 조직 활동을 버리고 합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노동 계급을 의식화시켜 그를 토대로 진정으로 마르크시스트적인 정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순전히 이러한 이론적인 각도에서만 청산주의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당 중앙위원회와 그리고 지하조직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불세비키로부터 독자성을 얻는 방편으로도 그러한 주장은 대두되었던 것이다.

멘세비키의 청산주의적 경향에 대해, 플레 카노프는 그것이 수정주의적 기회주의의 씨앗을 그 안에 품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산주의에는 그가 모든 힘을 기울여 싸웠던 경제주의의 냄새가 있다는 것이었다. 왜 그런가? 청산주의자들은 노동자의 자기활동을 복돌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배제함으로써 결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최소 저항의 길」과 「경제 투쟁—한 목표 추구의 길」을 걸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의 저변에는 그가 1905년의 혁명적 사변들을 보면서 노동계급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이 깔려 있다. 노동 계급은 외부로부터의지도 없이는 일관되게 「전전한」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성숙성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다는 관찰이 그것이다. 플레 카노프가 청산주의적 경향에 대해 반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당의 분열을 깊게 만든다는 점이었다. 그는 당의 보존과 단결을 필수불가결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진지하고 이성적인 사회민주당원이라면 정확한 노선, 즉 멘세비키 노선의 실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을 재건하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불세비키파의 「기이한 행동」이 싫다고 하여 당을 청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당의 재건은 당을 벼롭으로써가 아니라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고 그는 결론지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점은 청산주의적 경향을 구성하는 몇 요소들은 플레 카노프가 전개했던 혁명전술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1907년 초 그는 악설로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불세비키파의 최종적

분열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한 바 있고, 1908년에는 멘세비키파가 「이른바 당이라는 것」을 뛰쳐 나오게 될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었다. 또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가까운 장래에는 회피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사회민주당원은 부르조아지에게 전술적 지지를 제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조아 혁명을 성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의 주장대로 따라가면, 어떠한 종류의 혁명도 불가능해진다. 되풀이 하거니와,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단계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처방이고, 이 단계에서 부르조아혁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가 주장하는 부르조아지는 혁명을 악몽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어떠한 종류의 혁명도 불가능하다면 저하조직은 불필요해지는 만큼 사회민주당원들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합법적인 활동에 쏟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혁명포기론처럼 들리는 청산주의적 경향은 플레카노프의 전술적 계산으로부터의 논리적 추론인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플레카노프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1905년과 1907년 사이의 사변들은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공개적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짜리즘에 의한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자살을 택하지 않는 한, 여전히 저하정당으로 머물러 있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론컨대, 그는 포도주를 따라 놓기는 하고 그를 마시기는 거부한 것이다. 그가 전개했던 논리의 타당성이 아무리 대단히 강하게 그것을 요구했다고 하여도, 그는 너무나 깊이 혁명에 자기 스스로를 바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외쳤다 : “청산주의 없는 멘세비즘, 즉 혁명적 멘세비즘 만세 !”

플레카노프의 청산주의자와의 싸움은 그와 볼세비키파의 부분적 제휴를 낳았다. 그가 볼세비키파의 전술에 대한 자신의 적대감을 줄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이 반동의 시대에 전술의 문제는 당의 존립 그 자체가 걸려 있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부차적인 것으로 보였다. 더우기 레닌이 1909년 볼세비키파 내의 「소환주의자」들을 숙청한 이후⁽⁶⁾ 그와 볼세비키파와의 협력 가능성은 늘어났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환주의자들은 두마에 진출한 사회민주당원들을 두마로부터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원들로

(6) 이 일련의 상황전개는 다음에 기술되어 있다. Wolfe, *Three Who Made a Revolution*, p.522. 이 당시의 레닌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N. Harding, *Lenin's Political Thought*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7), I, pp. 282-283.

서, 말하자면 일체의 합법적 투쟁을 기회주의로 단죄하고 철저한 비합법적 투쟁을 옹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노선은, 일체의 비합법적 투쟁의 중지를 오르지 합법적 투쟁으로 전환시키자는 청산주의적 경향과는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것이었다. 플레카노프는 청산주의가 우익편향의 오류를 범했다면 소환주의는 좌익편향의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양자 모두의 과오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난했던 터였다. 그런데 레닌이 자파 내의 소환주의자들을 숙청하자 그와의 협력이 어느 정도 증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협력은 물론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뿐이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와 협력이란 당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시절의 플레카노프는 정치적으로 외로웠다. 멘세비키파의 조직적 견해와 볼셰비키파의 전술적 견해 양자로부터 협공을 받으면서, 그는 초당파적인 중간 노선을 옹호했다. 그는 우선 자신의 전술적 견해가 볼셰비키파도 멘세비키파도 생겨나기 이전의 시기에, 곧 노동자해방그룹의 발흥의 시기에 「완성」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전술적 견해에는 아무런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내가 때로는 볼셰비키파를 지지하고 때로는 멘세비키파를 지지했으나 그것은 나의 견해에 비춰 볼 때 어느 때는 볼셰비키파의 입장이 옳았고 어느 때는 멘세비키파의 입장이 옳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자기변호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지고 보면, 볼셰비키파와 멘세비키파는 그의 입장으로부터 편향해 나갔다. 레닌은 그의 2단계 혁명론과 갈라 섰으며, 멘세비키파는 그가 보기에는 수정주의로 기울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의 원래의 혁명이론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실제의 전술은 그가 보건대 자신의 이론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볼셰비키파와 멘세비키파가 시대의 요청에 자신을 맞춰나가기 위해 자신의 길을 추구한 반면, 플레카노프는 “내가 곧 마르크시즘이다(Le marxisme, c'est moi.)”라는 자세를 고집하면서 자신의 옛 이론에 완고하게 매달렸기 때문이었다. 그가 처한 궁지는 20세기 초의 정통 마르크시즘의 궁지이기도 하였다. 풀어 말해, 수정주의와 볼셰비즘 사이에 사로잡혀 정통 마르크시즘은 그 바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에 대한 지지는 너무나 얇어졌다. 약간의 「비당파적」 멘세비키를

제의하고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식에 따라 당의 재단결을 이룩해야 한다는 거듭되는 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1912년에 이르러 당의 양분은 너무나 명백해졌다. 그 이후에는 각파는 서로 자신이 유일합법적인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라고 주장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충성심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카노프는 여전히 당의 단결을 역설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새로운 국면을 맞아 그는 이제는 몇 사람 되지 않는 추종자들과 함께 자신의 신문을 시작했다. 그 제호는 『에дин스트보(Edinstvo: unity)』, 즉 단결이었다.

3. 플레카노프의 哲學世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추종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플레카노프만큼 철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카우츠키는 신칸트주의와 마르크시즘이 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고, 레닌은 보그다노프(A.A. Bogdanov)가 추구하는 神전설주의(God-constructionism)는 그것이 「사회혁명에 완전히 무관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플레카노프의 사고 방식으로는 그러한 태도는 마르크시즘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마르크시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마르크시즘의 변형 또는 수정 같은 행위를 감히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마르크시즘은 그 구성 부분들이 서로 서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완전한 하나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하고 어느 다른 부분을 고치는 작업은 마르크시즘 그 자체의 포기 또는 물이해를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었다(마르크시즘의 「과학성」에 대한 그의 신념은 이처럼 맹신적이었다. 그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결과 교조주의자로 배척되고 만 것도 마르크시즘에 대한 그의 이러한 맹신에 기인했다고 하겠다).

플레카노프가 이처럼 충성스럽게 마르크시즘을 옹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철학적 저술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가 마르크스의 이론 체계에 완전히 일관된 태도만을 취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그가 인민주의자들과 신칸트주의자들 및 보그다노프 그리고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수정해 보려는 사람들과 벌인 논쟁은 일종의 유사종교적 분위기를 안고 있다. 이들과의

논쟁에서 그는 “나에게는 하나의 복음이 있다. 그런데 만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복음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나는 그 천사를 파문에 처하겠다”던 센트 베르나르드(St. Bernard)와 같은 입장은 취한 것이다. 그러나 변증법적 유물론(dialectical materialism: 이 용어는 플레카노프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헤겔에 관해 1891년에 쓴 자신의 논문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R.N. Carew-Hunt, *Marxism: Past and Present*, New York, 1955, p. 5)에 관한 자신의 분석에 있어서는 종교적 태도를 버리고 과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때로는 어느 정도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철학사(A History of Russian Philosophy)』를 쓴 젠코프스키(V. V. Zenkovsky)가 플레카노프를 설명하면서 “그는 마르크시즘에 대한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자유로웠다(inwardly free)”고 썼던 것은 이러한 측면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플레카노프는 마르크시즘의 최고성을 입증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과학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마르크시즘은 단연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작업이 그러나 마르크시즘 그 자체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역사·미학·인류학·문학·인식론 등 여러 학문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마르크시즘의 「과학」을 이러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 「과학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다. 그의 뛰어난 논문인 「주소 없는 편지들("Letters Without Address")과 「마르크시즘의 기본적 문제("Fundamental Problems of Marxism")」들을 보면, 그가 다른 분야의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자신의 이론 체계 속으로 통합시키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쉽게 알게 된다. 예컨대, 다윈(Charles Darwin)과 헤켈(Ernst Haeckel) 및 드 브리즈(De Vries) 등의 진화론, 타일러(Edward Tylor)와 라黜(F. Ratzel) 및 프레이저(Sir James G. Frazer) 등의 인류학이론, 그리고 포렐(Auguste Forel)의 심리학 이론 등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가 나타나 있다.

마르크시즘에 대한 완전무결한 이해에 도달하고 또 그것을 인간생활의 모든 부분에 「과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철학의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플레카노프는 주장했다. 그에 따라 그 스스로 철학사의 연구에 몰두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첫번째 작품이 1891년

그가 헤겔 서거 60주기를 맞아 발표한 논문으로서, 엥겔스와 카우츠키의 격찬을 받았다. 헤겔은 플레카노프의 神殿에서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헤겔로부터 플레카노프는 역사철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자신의 사고방식의 기본 유형을 이룩하는 많은 부분들을 배웠다. 이 논문에서, 플레카노프는 개별적 철학들이 우연한 이론적 건축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필요한 산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썼다. 즉 “每個의 특정한 철학은 그 시대의 딸이며, 가장 뒤늦게 나온 철학은 모든 先行 철학의 결과로서 그 스스로 안에 모든 정당한 원리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철학의 역사를 그러한 시각에서 살피면서,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이 모든 선행의 철학적 사상의 정점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야말로 모든 이론적 체계 가운데 「가장 많이 발달되고 가장 풍부하며 가장 구체적인 것」이라고 찬양했다(그의 이러한 입장 역시 마르크시즘에 대한 그의 맹종적·교조주의적 편견을 말해 준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약점은 이미 많은 이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터이다).

플레카노프의 그러한 입장은 널리 읽혀지고 격찬의 대상이 되었던 그의 책 『역사의 일원적 개념의 발전에 관하여』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책에서 그는 헤겔을 18세기의 유물론적 사상가들과 「현대적 유물론」을 연결시킨 다리(橋)로서 묘사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그가 그 이전에 썼던 대단히 독창적인 학문적 저서인 『유물론의 역사에 관한 논문(Essays on the History of Materialism)』에서 지적했었다(이 책은 1896년에 와서야 출판됐다). 여기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홀바치(Baron Paul Henri Holbach)와 헬베티우스(Claude Adrien Helvétius)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들은 그 시대의 지도적 사상가로서 유물론에 일치되는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또 정치적 좌파의 입장은 고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관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기초적인 역사 문제를 풀지도 못했고 사회적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지도 못했다고 그는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들은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유물론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역사를 발전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우연의 무질서한 연극의 결과로서 파악했으므로, 사회적 제도와 사회사상 및 그들의 상호 연관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로 대표되는 18세기 유물론의 결합을 극복한 업적은 헤겔에게 속한다고 플레카노프는 보았다. 그에 따르면, 헤겔은 사회제도와 사회사상의 상호

관련성을 명백히 설명해 주는 요인을 열심히 찾았으며, 그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를 내던지고 변증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즉, 현상을 그들의 상호연관이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인 변증법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헤겔이 그 방법을 사회에 적용했을 때 그것은 「완전한 혁명」을 낳았다고 플레카노프는 주장했다. 즉, 「일정한 법칙에 의해 규율되는 과정으로서의 인간의 역사」라는 대단히 자극적인 개념에도 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는 과거에는 그저 우연의 무질서한 연극으로만 보이던 것의 법칙과 근본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겔의 체계에도 결함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의 관념적 접근방법이었다고 플레카노프는 주장했다. 헤겔이 철학 사상을 거대하게 진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그 결합 때문에 현대화된 형태의 유물론의 제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를 통해, 역전된 방식으로 헤겔이 인식한 존재와 자유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존재와 자유의 역전된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플레카노프에 의하면, 헤겔 좌파에 속하는 포이에르바하(Ludwig Feuerbach)에 의해 시도됐다. 포이에르바하는 유물론을 일신시킴으로써 올바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물론을 헤겔의 변증법적 방법과 종합시킨 업적은 결국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돌아간다고 그는 주장했다. 바꿔 말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지배적 생산양식인 물질적 요소가 사회의 성격의 결정자로서 일차적 의미를 지닌다고 「정확히」 선언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정신적 현상——여기에는 주어진 어느 시대에 발생한 이념을 포함한다——은 사회경제적 기초 위에서 성장한 상부구조를 형성할 뿐인 것으로 그들은 파악했다는 것이다. 종합컨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의 사회적 환경과 그의 이념이 사회의 생산체계(the productive system of society)로부터 파생한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플레카노프는 평가했다.⁽⁷⁾

이러한 찬사와 더불어 마르크시즘에 대한 플레카노프의 충성심은 천명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시즘을 묵수함에 있어서 그는 결정론에 빠져 들어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역사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하는 오류

(7) 플레카노프의 마르크시즘 研究는 다음의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Howard Lowell Biddulph, "Karl Marx's Early Thought in Soviet Philosophy," unpub. Ph. D. dis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1966.

를 범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진화와 혁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함에 있어서도 실패했다. 서구가 혁명의 길을 피하고 진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승리였다. 인간의 의식적 행동에 힘입어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사에 의해 서구는 마르크시스트가 예견했던 역사적 과정을 변경시킬 수 있었다. 물론 플레카노프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중요성과 진화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사회·정치적 질서에 대한 그의 증오는 그 질서를 타도시켜야 한다는 그의 정열을 불질렀으며, 이에 따라 그는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마르크시즘을 고수했던 것이다.

4. 플레카노프의 歷史 研究

철학 못지 않게 플레카노프의 학문적 관심을 자극한 것은 역사학이었다. 따라서 그의 글의 상당한 부분은 역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서양철학사와 러시아지성사에 관해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업적은 그의 역사적 결작으로 평가되는 『러시아 사회사상의 역사(The History of Russian Social Thought)』인데, 1909년부터 집필하기 시작했다. 출판사와 처음 계약할 때는 러시아 사회사상의 시초로부터 1905년의 혁명까지를 한 권에 정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착수하고 보니 양이 무척 늘어날 것이 확실해져서, 출판사는 1917년 그의 책이 적어도 일곱 권의 분량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 해 그가 죽었을 때 그는 겨우 3권까지의 집필을 마쳤을 뿐인데, 18세기 말의 라디시초프(Alexander Radishchev)에 관해 쓰고 있었다.⁽⁸⁾

이 책의 머리말에서 플레카노프는 이 책을 일관되게 지배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경정한다」는 사적 유물론의 기본적 명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사회생활을 시간과 공간의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분석하고 그것을 사회사상과 연결지어 평가했다고 썼다. 이 책이 중요하게 다룬 또 하나의 논점은 러시아의 사상가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씨름해 온 문제였다. 러시아가 서구에 속하는가 아니면 동방에 속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 물음에 대해

(8) 라디스초프는 기본적으로 무서운 혁명을 피하기 위해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James M. Edie et al., *Russian Philosophy* (Chicago: Quadrangle Books, 1965), I, pp. 62~100.

그는 러시아가 서구와 공유하고 있는 특성은 근본적인 것이고, 러시아가 동방과 공유하고 있는 특성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을 서구의 유형보다는 동방의 유형에 비유했다. 즉 그는 「동양적 전제(Oriental despotism)」 또는 「半동양적 전제(Semi-Oriental despotism)」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고대 이집트와 중국 및 인도와 같이 러시아도 이러한 체제 아래서 전지전능의 국가 권력이 생산 수단을 전면 장악하는 한편 피치자 전원을 그 계급의 구별 없이 전적으로 종속적이며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다른 역사가들과는 달리 그는 이 동양적 전제의 발전을 러시아에 대한 2백여년간의 몽고 지배와 연결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몽고 지배가 끝난 다음인 16세기 초에 러시아 전역에 대해 우위적 지배권을 확보한 모스크바 대공국과 연결시켰다.

플레카노프는 러시아 전제체제의 출현을 재정적 압박의 결과로서 파악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클리우초프스키(V.O. Kliuchevsky)의 학설에 동조하고 있었다. 모스크바 대공국이 통치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중앙집권적인 국가 통치기구를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그리고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해 나감에 따라, 통치자는 엄청나게 많은 경비를 필요로하게 되었는데, 러시아는 압도적으로 농경사회인 만큼 재원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분석은 충발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통치자는 결국 강압적이며 가혹한 조치와 제도를 통해 전 국민의 절대 다수를 형성하는 농민을 철저하게 착취해 나갔다는 것이다. 농민은 처음에는 토지를 빼앗기고 다음에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 마침내는 자유마저 빼앗겼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여, 러시아에 있어서는 비록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생산성이 대단히 낮다고 해도 농업만이 유일한 생산활동이므로, 이것을 국가가 전적으로 장악해서 짜내지 않으면 국가가 다른 길을 걸지 않는 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리바이어던적인 국가의 수립이 결과되었다고 그들은 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러시아의 경제적 특성——그들은 러시아의 경제를 자연경제라고 불렀다——위에서 전제적 정치체제의 특성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플레카노프는 러시아의 동양적 전제의 또 하나의 중심적 특성이 그것의 안정성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사회적 동요와 봉기의 결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 늦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다. 러시아 경제가 자연경제이며, 자연경제는 그 생산기술에 있어서 전통주의를 고수하여 전래의 방식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만큼 모든 다이내미즘(動力)을 상실하고 있다고 그는 전제했다. 이처럼 역사발전의 주요한 동력 자체가 정체상태에 빠져버렸으므로,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정치적·知的·도덕적 생활 역시 바뀌지 않았다. 사회생활의 유형이 이러한 고정적 틀 속에 묶여버리자 이 틀 속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회·정치적 질서를 생각할 능력을 결여했다고 그는 보았다. 그러므로 인민봉기가 일어나도 그것은 체제 그 자체를 겨냥해 본 일이 없었으며 그저 「가짜 짜르」를 몰아내야 한다는 선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인민은 짜르가 자신의 착취체제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가부장적 보호자로서 하늘같이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민의 이러한 비합리적 행동 자체가 동양적 전제체제의 야만적이며 비인간적 정책의 산물임은 물론이다. 어떻든 이러한 상황이 러시아의 동양적 전제체제의 사회·경제적 기반으로서, 이것이 존속하는 한, 전제체제는 안정성을 유지했다고 결론지었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 책에는 결함이 꽤 포함되어 있다. 慻意的인 해석이 적지 않다. 그의 결함들을, 플레카노프의 이 책과 같은 제목의 책을 출판한 이바노프라주드니크(V. Ivanov-Razumnik) 같은 이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전히 결작으로 꽂히고 있다.

5. 플레카노프의 藝術研究

플레카노프가 러시아 마르크시즘의 아버지로는 널리 인정되어 있지만, 그가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문예비평가의 아버지였다는 점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는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체계적 예술이론과 예술비평을 구축해 나간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의 첫 작품은 우스펜스키(Gleb Uspensky)의 문학에 관해 1888년에 쓴 비평문이었다. 우스펜스키는 이른바 「순수 문학적 인민주의자(belletrist Narodniks)」그룹에 속한 작가였다. 러시아 농민에 대해 지극히 동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그들은 농민생활을 소재로 많은 시와 소설을 썼는데, 플레카노프는 그들 하나 하나를 마르크시스트적 관점에서 비평하고자 시도하여 우선 우스펜스키에 관한 평론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 글을 보고 악설로드는 “문예비평에 대한 마르크시스트적 방법의 뛰어난

적용이다. 우리는 이같은 것을 가져 본 일이 없다”고 격찬했다. 플레카노프는 이어 카로닌(S. Karonin: 1890)과 나우모프(N.I. Naumov:1897)에 대해 서도 같은 방법에 입각한 평론을 썼다. 여기서 유물론적 방법의 적용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플레카노프에 의하면, 그것은 작품의 사회적 뿌리를 발견하여, 그 작품의 이념과 사상을 「예술의 언어」로부터 「사회학의 언어」로 전환시키는 일이었다. 즉, 「어느 주어진 문예적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等價物」을 찾아주는 일이었다.

플레카노프는 사회과학보다도 예술이 더 복잡하고 더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했다. 사회과학과는 달리, 예술의 생산과 평가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이라고 그는 본 것이다. 즉, 예술의 창조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즉 보다 원시적인 동물들과 공유하고 있는 놀이본능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플레카노프에 따르면, 인간의 이러한 능력은 상이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틀지워져서 상이한 결과를 낳는다. 예술의 형태와 내용이 시간과 공간의 상이한 조건에 따라 대단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그는 보았다. 그뿐 아니다. 예술의 본질이 그리하므로, 예술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사회학적 등가물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원시예술에 관한 한,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보다 선진된 사회에서는 문제가 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

예술적 작품에 대한 사회학적 평가를 내린 다음 마르크시스트 평론가는 미학적 평가에 들어가야 한다. 플레카노프에 의하면, 이 작업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그의 표현으로는, 유물론적 비평가라고 해서 “미학을 향해 문을 닫아버리면 안된다”. 그 반대로, 그는 「특정한 작품에 대한 미학적 가치의 평가」라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유물론적 분석방법과 先代의 관념론적 분석방법을 배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독창적인 발상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그는 헤겔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그가 “러시아의 모든 작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가”라고 불렸던 벨린스키로부터 배웠고,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평론가로서 그가 존경해 마지않던 텐느(Hippolyte Taine)로부터 영향 받은 것이었다.